

南宮桂籍

朝

22

20



南宮桂藉



吉 30  
22

文昌帝君像



心無性合性與天合由儒入道通

心如止水

無風無浪體虛實  
萬象皆現

陽律論跡所以志疎陰律論心所以志密

性同明月

隨處又周遍

清風則真面園集

身從何來道從何去

於此為若天理流行



文 昌 帝 君 寶 誥

不驕帝境玉真慶宮現九十八化之行  
藏顯千百萬種之神異飛鸞開化於在  
在如意救劫以生生至孝至仁功存乎  
儒道釋教不驕不樂職盡乎天地水官  
功德難量威靈莫測大悲大願大聖大  
慈九天輔元開化主宰司祿職貢舉真  
君七曲靈應保德弘仁大帝談經演教  
消劫行化受生永命天尊

문창테군보교

불교테경옥진경궁현구십팔화지형  
상현천박만종지신리비란게화이지  
지여의구첩이싱싱디효다인공존호  
유도석교불교불락적진후련디슈관  
공덕란량위령막측대비대원대성대  
저구련보원리화쥬지스록직공거진  
군칠푸령응보덕홍인대테담경연교  
소첩형화링싱영명턴존

南宮桂籍序

梓潼帝君一十七世爲士大夫身廣行功德卒應顯  
號與漢壽亭侯並爲文武二帝神道設教洋溢乎  
中國矣惟我東秩祀之典備遵華制尤虔奉武帝而  
獨於文帝未遑焉然竊謂神之在天下猶水之在地  
若所以陰庇而默佑之則視其人而已祀不祀非所論  
况國家文治醲郁德化郅隆慈孝順祥諸福畢致則  
意帝之明靈固已騶鸞駕虬朝夕於箕尾之次特人  
不知耳如有吉人善士誦帝之號讀帝之書思所  
以對越於帝者卽此一念帝在其左右矣又何必

辨香膜拜建茅以求之哉近有里社數三人錢行關  
帝聖蹟圖誌既成事矣又謀刊文帝之書以全快浩  
大不能遽就乃取陰陽勸孝二文及靈驗若干則都為  
一篇以付手民公諸一世俾讀者皆得起敬起信同登  
善籍其用心可謂仁矣建昌嘗奉使中國祇謁帝廟  
奉帝像一幃而歸今又執筆序此蓋以興事為幸故  
不敢辭

丙子嘉平節完山李建昌敬書

南宮桂籍

勸孝文

帝君垂訓

今日是元旦爲人間第一日吾當說人間第一事

勸孝

第一事孝者百行之原精而極之可以參

贊化育故謂之第一事赤子離了母胎在孩抱便知得

故謂之第一事捨此一事並無學問捨此一事並無功

業捨此而立言則爲無本之言捨此而能功蓋天下到

底不從性分中流出必作偽以欺國負本以滅身天地

是孝德結成日月是孝光發亮孝之道言不可得而盡

也爲人子者事富貴之父母易事貧賤之父母難事庶

健之父母易事衰老之父母難事具慶之父母易事寡  
獨之父母難夫富貴之父母出入有人扶持居止有人  
陪從其願常給其心常歡貧賤之父母捨卻白髮夫妻  
誰爲言笑離了青年子媳莫與追隨人子一日在外父  
母一日孤悽爲人子者善體其情能頃刻離左右也乎  
康健之父母行動可以自如取攜可以自便朝作暮息  
可以任意訪親問舊可以娛情衰老之父母兒子便是  
手足不在面前手足欲舉而不能媳婦便是腹心不在  
膝下腹心有求而不遂時而欣欣於內時而戚戚於懷  
爲人子者善體其情能頃刻離左右也乎具慶之父母

日間有以作伴夜間有以相溫晷無所事相與說長論短夜不成眠互爲知寒道冷寡獨之父母兒女雖有團圓之樂夫妻已成離別之悲家庭之內獨行踽踽涼涼形影之間惟有悽悽楚楚爲人子者善體其情能頃刻離左右也乎嗚呼試問身從何來親爲生我之本孝爲何事人所自有之心是我此章而不動心者非人也見我此章而不墮淚者非人也運于悍媳是我此章而不化爲孝子順媳者與禽獸何異人人得而誅之者也

陰騭文

帝君曰吾一十七世爲士大夫身未嘗虐民酷吏殺人

之難濟人之急憫人之孤容人之過廣行陰騭上格蒼  
穹人能如我存心天必錫汝以福於是訓於人曰昔于  
公治獄大興駟馬之門實氏濟人高折五枝之桂救蟻  
中狀元之邊埋蛇享宰相之榮欲廣福田須憑心地行  
時時之方便作種種之陰功利物利人修善修福正直  
代天行化慈祥爲國救民忠主孝親敬兄信友或奉眞  
朝斗或拜佛念經報答四恩廣行三教濟急如濟涸轍  
之魚救危如救密難之雀於孤恤寡敬老憐貧措衣食  
周道路之饑寒施棺槨免屍骸之暴露家富提攜親戚  
歲飢賑濟鄰朋斗秤須要公平不可輕出重入奴僕待



之寬恕宜宜備責苛求印造經文剞修寺院捨藥材以  
極疾苦施茶湯以解渴煩或買物而放生或持齋而戒  
殺舉步常看蟲蟻禁火莫燒山林點夜燈以照人行造  
河船以濟人渡勿登山而網禽鳥勿臨水而毒魚鰕勿  
宰耕牛勿棄字紙勿謀人之財產勿妒人之技能勿淫  
人之妻女勿唆人之爭訟勿壞人之名利勿破人之婚  
姻勿因私讎使人兄弟不和勿因小利使人父子不睦  
勿倚權勢而辱善良勿恃富豪而欺窮困善人則親近  
之助德行於身心惡人則遠避之杜災殃於眉睫常須  
隱惡揚善不可口是心非翦礦道之荆榛除當塗之尾

石修數百年崎嶇之路造千萬人來往之橋聖訓以格人非捐貲以成人美作事須循天理出言要順人心見先哲於羹牆慎獨知於衾影諸惡莫作衆善奉行永無惡曜加臨常有吉神擁護近報則在自己遠報則在兒孫百福駢臻千祥雲集豈不從陰陽中得來者哉

靈驗記

眉山蘇公仲九行陰陽文蜀地大荒捐膏腴產三千畝濟活飢民無算乃生洵一日洵遊玉局觀得帝君像每旦虔禱四年生子軼官尚書又二年生子轍官侍郎何文縝丞相稟政和初嘗計偕過帝君祠下默禱而拜

是夕夢諭曰汝實殿魁聖策所問道也文穎抵闕下適  
得道德經因日夜寤治及試策目果問道而中殿魁  
真西山德秀未第時將會試於行在道經括蒼約友鄭  
達道同祈夢於帝君廟入謁遽擊其鼓題詩於上曰大  
叩則大應小叩則小鳴我來一叩動天地五湖四海聞  
其聲是夕得言夢其年果中進士  
王文恪公葵申文定公時行虔奉帝訓身體力行文恪  
中會元帝君現於關中文定中狀元靈芝生於几上二  
公文章相業卓越千古子孫科第綿延不絕  
太原諸生王用予會友結文昌社每設醮以祈科名社

中俞麟以孝謹稱郁從周能文善談社中推服正統辛酉元旦用予司會設醮先赴宿壇方就枕有人促起曰帝君升殿用予不覺身出見列炬燭天帝君端坐天下城隍彙送鄉試榜冊一神絳服抱大冊用予問曰本省榜有王用予名否神曰無又問有俞麟郁從周否亦曰無少頃絳服神捧冊跪陳帝君披閱每名下書一押亦有躊躇不下筆者良久絳服神宣諭云仍付各省城隍速查陰德仁厚之子以換榜中未押者忽聞殿內傳呼王用予入謁用予進前帝君曰累覽爾表因汝至誠故召汝祈之汝祖父皆樸謹無過已註爾鄉科以彰忠厚

之報因汝生平遇神佛稽首止祈自己功名並妻楊氏  
病痊媼母在堂並不祈佑以此獲罪降爾兩科用予叩  
謝帝君曰同社周吉今科解元因問中元之故帝君曰  
周吉祖父俱爲士從無一字入公門不奸淫不形人短  
暴人惡且其祖作百忍說以訓人上帝克嘉註昌三代  
用予曰俞麟郁從周可發科第否帝君顧掌卷童子查  
太原士冊色若不慳曰俞麟應得一科因事親腹誅且  
豁刻論人不近情理故黜其科郁從周生畀異才應成  
進士官至少保六十九善終緣其恃才傲物諧謔譏諷  
冥司錄其輕薄口過註入惡籍悉除所有儻不知悔將

奪壽弄淫殺口過絲毫有報至汝功名一途尤爲大忌  
但殺業淫業少知自愛者猶知禁戒至於口頭訛謗少  
年習氣以爲得意而心骨輕薄斷喪元氣可不懼哉汝  
當廣勸世儒鑒茲爲戒毋煩我簽榜時大費躊躇用于  
拜退而寤秋榜周吉果冠一省

邱瓊山濬字仲濂自幼少時佩服帝訓每日持誦文昌  
孝經一夕靜憩文鏡齋頭夢帝君告誡曰子誠能廣布  
經文普勸世人我當報汝甲第聯雲位極文臣瓊山因  
與同人購梓翻刻廣施凡五千餘卷闈試之日見奎斗  
汎筆挾卷跳躍於前卷上大書金字曰文昌孝經須臾

置第六調選得河南儀封縣循績報最擢御史

彭定求字凝祉舉家敬事帝君康熙壬子領鄉薦甲寅  
中秋日帝君降乩於其家有訓文三篇心懺一部命刻  
警世諄諄懇切公卽虔刻印施至丙辰會狀聯元孫啓  
豐領雍正丙午鄉薦丁未會狀連元

嘉興郡庠司訓范允燮康熙丙寅建文昌閣鋤土得古  
錢一枚面篆天開文運四字背作筆錠蓮燈之形丁卯  
閏成倣篆文懸額於閣戊辰修撰沈廷文遠大魁天下  
會稽錢志遠母王氏順治十八年冬病危時年八十有  
一志遠虔禱帝君許印陰牘文萬張不數日母病卽愈

華亭宋學祁妻沈氏患傷寒並小產昏迷諸醫束手虔  
禱帝君立願刊施陰騭文三千張卽愈

宛平謝紹銓四十乏嗣順治己亥冬發心刊施陰騭文  
萬張其妻患弱證屢孕不育至是病痊與妾各生一子  
武林龔璋字爾茂發願刻陰騭文印施共計二百餘萬  
張於康熙元年廳前印文處畫見帝君絳袍玉帶積誠  
感通非僅夢寐通靈也璋之眼疾痔疾妻郭氏臨產血  
衝姪婦徐氏難產姪婦李氏腹痞僕龔賢傷寒僕華福  
痰喘各人危證發願虔禱俱得痊癒

顏章敬字生榆平日一心敬事帝君康熙丁巳秋夢帝



華亭宋學祁妻沈氏患傷寒並小產昏迷諸醫束手度  
禱帝君立願刊施陰騭文三千張即愈

宛平謝紹銓四十之嗣順治己亥冬發心刊施陰騭文  
萬張其妻患弱證屢孕不育至是病痊與妻各生一子  
武林龔璋字爾茂發願刻陰騭文印施共計二百餘萬  
張於康熙元年廳前印文處畫見帝君絳袍玉帶積誠  
感通非僅夢寐通靈也璋之眼疾痔疾妻郭氏臨產血  
衝妊婦徐氏難產姪婦李氏腹瘡僕龔賢傷寒僕華福  
痰喘各人危證發願虔禱俱得痊癒

顏章敬字生榆平日一心敬事帝君康熙丁巳秋夢帝

君授書一冊額曰丹桂籍開視之乃陰騭文也醒甚異  
之因卽於藏書處檢其六世祖廷表公暨乃考雲麓公  
所輯文昌帝君陰騭文註案而參訂廣益之發心刊布  
力有未能至癸亥秋章敬復夢帝君臨家遂伏地叩首  
帝君問陰騭文註案完否章敬惶愧無地對以牽荒力  
薄方欲興工醒卽謄稿付梓丁卯秋痢疫流行章敬家  
上下俱病且甚章敬虔禱於帝君願速竣丹桂籍印施  
廣佈禱畢漸痊安舉家康泰  
金以祥偶患血證服藥不效客寓硤石鎮適見帝君陰  
騭文遂發願刊施以廣聖訓方舉念而病卽漸愈

남궁계적서

지동명<sup>축</sup>디데군이열일을본번태상에사대부의몸이되

스<sup>진</sup>나라<sup>석</sup>에나스<sup>형</sup>은<sup>장</sup>아오<sup>회</sup>는<sup>비</sup>금아<sup>조</sup>오<sup>축</sup>

스<sup>진</sup>나<sup>석</sup>에<sup>나</sup>스<sup>형</sup>은<sup>장</sup>아<sup>오</sup>회<sup>는</sup>비<sup>금</sup>아<sup>조</sup>오<sup>축</sup>

스<sup>진</sup>나<sup>석</sup>에<sup>나</sup>스<sup>형</sup>은<sup>장</sup>아<sup>오</sup>회<sup>는</sup>비<sup>금</sup>아<sup>조</sup>오<sup>축</sup>

스<sup>진</sup>나<sup>석</sup>에<sup>나</sup>스<sup>형</sup>은<sup>장</sup>아<sup>오</sup>회<sup>는</sup>비<sup>금</sup>아<sup>조</sup>오<sup>축</sup>

스<sup>진</sup>나<sup>석</sup>에<sup>나</sup>스<sup>형</sup>은<sup>장</sup>아<sup>오</sup>회<sup>는</sup>비<sup>금</sup>아<sup>조</sup>오<sup>축</sup>

스<sup>진</sup>나<sup>석</sup>에<sup>나</sup>스<sup>형</sup>은<sup>장</sup>아<sup>오</sup>회<sup>는</sup>비<sup>금</sup>아<sup>조</sup>오<sup>축</sup>

스<sup>진</sup>나<sup>석</sup>에<sup>나</sup>스<sup>형</sup>은<sup>장</sup>아<sup>오</sup>회<sup>는</sup>비<sup>금</sup>아<sup>조</sup>오<sup>축</sup>

스<sup>진</sup>나<sup>석</sup>에<sup>나</sup>스<sup>형</sup>은<sup>장</sup>아<sup>오</sup>회<sup>는</sup>비<sup>금</sup>아<sup>조</sup>오<sup>축</sup>

의 계시 미물이 허히 잇슴 님지라 만일 가만 이 텡 무  
시고 잠잠이 도으신 반죽 쓰스름의 차흔 것만 볼 님  
이 오 제스 하 고 제스 아 나 하 는 것 순 의 론 하 는 비 아 나 라  
흐를 며 국 가 의 문 치 가 농 옥 하 시 고 덕 화 질 류 하 스 자  
흐 순 상 하 야 모 든 복 이 다 나 른 즉 님 하 건 디 데 의 명 령  
이 진 실 노 임 의 란 시 를 참 승 하 고 규 룡 을 명 에 하 스 고  
미 간 조 선 분 야 내 동 북  
간 투 별 일 흥 이 라 지 음 의 조 석 으 로 림 하 시 되 다 만  
스름 이 아 지 못 하 는 지 라 만 일 길 인 천 시 이 셔 데 의 성  
흐를 외 오 고 데 의 클 을 님 어 베타 게 대 월 하 기 를 성 각  
하 는 지 곳 이 흐 번 성 각 의 데 게 셔 고 좌 우 의 림 하 시 리

라또엇지반도시향을씻고비례하고모사로배강링  
하시기를구하라근리나웃세슈상인이잇셔판테성  
적도지를리간홀시임의일을맛춘저라도문테의클  
을리간하기를외어나견질이호대야거연이니루  
지못함으로이에음즐문천호문두대운과령형괴약  
간측을괴록하야합하야호편을민드러배직슈의게  
부쳐세상의공히하야넉논나로하야곰다공정하고  
밋부물어더흔가지착호문적의오르게하니그마음  
쓰미가히어지다니를저라전창이일즉사명<sub>판</sub>장을  
바드러중국의갓다가테묘의비알하옵고테군의화

상훈본을외셔도라왔더니이제또붓슬잡아이책의  
셔문을흔니더기배이일의참예흔크로배다히흔미  
되고로강히스양치아니흔노라

병자납평일완산리전창경서

남궁계척

권효문

테군이 슈훈후스 곧 오사되오날은 이원죄정라 인간  
의테일날이되노니 내맛방이 인간의테일일을말동  
리라엇지니르되테일에일인고호도노백형의근위  
아니정일동야구진케하면가히배화유후의충찬홀  
지라그런고로테일에일니라니르노나라적지야<sub>간</sub>하  
어미티를셔나히포에잇슬체문득아노고로<sub>강보</sub>잇<sub>셔</sub>던  
디를아지못하되부모<sub>잇</sub>테일에일이라니르노니이호  
를몬려아단말이라<sub>잇</sub>테일에일이라니르노니이호  
가치일을노코노다시학문이업스며이호가치일을

노코난다시공업이업스니 이것을바리고말을해우  
면근본업노말이되고이것을바리고능히공이현하  
의됨피여도도적의심분<sub>말이취</sub>형이<sub>란</sub>가온딩로죽차나  
지아니하야척반<sub>식</sub>거죽짓슬하야베나라흐를죽이  
며근본을져바려베몸을말하스니런디노이효도의  
덕으로미스일위스며일업은이효도의빛츠로발고  
을발하의니효의도노가히말노배다하지못하리로  
다스름의스식된져부귀호부모섬기기노쉽고빈천  
호부모섬기기노어려오며강건호부모섬기기노쉽  
고외하고늘근부모섬기기노어려오며무정호부모



말이와 같 단 섬기 기는 삼고 과 독 훈 부모 과부와 환부 섬  
기 기는 어러 오니 더 더 부 키 훈 부모 노 출 입 한 이 스름  
이 잇셔 붓 들며 거 처 한 이 스름 이 잇셔 되셔 그 원 이 항  
상 종 한 고 그 마음 이 항 상 즐 거 오 더 빈 천 훈 부모 노 비  
발 의 부 처 를 노 한 면 위 한 야 말 과 우 승 을 한 며 절 문  
주 식 아 들 과 을 더 나 면 더 부 러 족 출 이 업 는 지 라 스름  
의 주 식 이 한 로 를 밋 게 잇 스 면 부 외 한 로 가 외 롱 고 슬  
하 사 서 나 니 스름 의 주 식 된 지 그 뜻 을 잘 밋 들 면 능 히  
경 령 인 들 좌 우 에 더 날 소 나 강 건 훈 부모 노 힘 동 한 이  
가 히 버 주 여 한 며 취 휴 면 말 이 라 은 한 이 가 히 버 주 편

하미 아침의 날고 저를 제취미 가히 배임의로 하미 여계  
레를 초즈며 친구를 무려 가히 배신타를 즐기 되외 하미 고  
늘근 부모노 아들 이 변시 슈족 이 라면 전의 잇지 아니  
면 슈족을 들고 저 하미 되 농히 못 하미 여며 노 리 노 변시 복  
심이 라 슬 하의 잇지 아니 면 복심의 구 하미 잇셔 도닐  
우지 못 하미 야셔 로마 음의 깃거 하미 고 셔로 회포의 슬히  
하 시 노 니 스롬의 지식 된 저 그 싯을 잘 밧 들진 디 능히  
경직인들 좌우에 셔날 소냐 구경 호 부모 노 나 제 노 빠  
지 으미 잇고 방에 노 셔로 의 지 하미 잇셔 나 제 일이 업  
스면 셔로 터 부러 긴 것슬 알 하미 고 저 른 것슬 의 료 하미 여

밤의 잠을 날우지 못함 면서로 위함야 치우물알고링  
함을 말함되 파독호부모는 아들들이 비록 단원호를  
거오미잇스나 부체암의 리별의 슬무물날위여가영  
안의 홀노 단나미우우량함며 배속배속이러얼골과  
그림저사이의 오즉취취초초면이량한면 함미잇는니  
스름의 저식된지그뜻을 잘바드면능히 경칙인들좌  
우에 떠날소냐 오화라시형함야 못는니 몸이어터로  
쫓쳐와는고 부모는 날을나호신근본이 오효도는잇  
더호일인고스름의 스스로잇는바 마음이나나 의이  
클을보고마음이동치아니호는저는스름이아니며

나의 이름을 보고 눈물을 썩르치지 아니하느뇨  
스름이 아니오 죄역흐스식과며느리가 나의 이름을 보  
고 화하야 효저와 순흐며느리아니 되느뇨  
금슈로 더부러 엇지 다르리오 스름마다 시러  
곰버힐지니라

음즐문

데군이 곧 오사 디내 열일곱번 체상에 사대부의 몸이  
되여 일즉 빙성의 게포 하하고 아견의 게후 독하하미 업  
서스며 스름의 환난과 굶흐를 구제하며 외로온 너를  
불상이 녀이며 잘 못흔 너를 용서하며 널니 음덕을 하  
하야 우희로 하눌애 스못치니 스름이 능히 날과 갓치

마음은 두면 하늘이 반드식 복을 주시리라 이애스름  
 을 가르쳐 곧 오사 더 넷적의 우공의 옥을 다스리니 크  
 게 사마의 문을 날의 켜고 니우공은 현나라 동의 스름이  
 너옥아 현이 되어 원동호호  
 을 평절 하미슈가 업더니 공의 잠문이 운히 진지라 공  
 이 곧 오더내기 허옥하의 원왕호일이 업스니 손의  
 네반드시 흥하리나 사아 용남하계 문물지으라 하야 두  
 니나 아 들 정국이 과 연 승상이 되고 봉후하나라 하야 두  
 씨 스름을 전지미롭다 다섯가지 계화를 섹고 두씨  
 일홍은  
 우근야 오연산스름이 나히 삼십여 해의 조취현  
 몽하야 벌니 곧 오더내기 무저단슈하리니 알즉사하  
 일을 힘쓰라 그후로 부터 음덕을 행하교 신칙과 향당  
 의 장소 못지나고 혼취 못하저 변저물너이 다 성취하  
 커로 연슈다사 현몽하야 나르되 배가 음공을 안이 항  
 니등과 하리아미를 구하미 과거의 장원하교 송적에 송  
 교 송기 현

광원급태호고더너호승이잇혀상보와콜오더아오  
 보고너르되형의상외돈연이변호야스너슈하의만  
 명을살넛도다송피웃혀곧오더땃별야전외당하의리  
 아이콤기잇혀구호비의잠기게되기로타를역가건  
 저노라승이곧오더이연피리형이장원급태호리라  
 연장원호너후과빈암을뭇으미지상의영화를누리너  
 초나라손속오호어미연고를무른던디월아희드르니  
 라외을거늘그어미연고를무른던디월아희드르니  
 능두스를보노스름은반드시죽기로우너이게어  
 히보왔기로모친을바리고죽키기로우너이게어  
 이콜드티비암이이혀어니잇는고던칼다른스름이  
 보고죽을가념녀이혀죽키뭇어는너다외알베드르  
 너음덕잇는너는반드시선보가잇다호너라에영원  
 초나라를호호리라그후손속외과연초너라에영원  
 되야극정은복밭출널너고즈홀진디모로이심다를  
 빙즈홀지라셔셔에방편을히홀며종종호음공을지

어스름과 만물을 리케 하며 착흔 열과 복을 닷고 며 정  
직함 미하 노은 디 신함 야 교화를 힘함 며 자상함 미 내  
스름함 고 착흔 열을 힘함 단 말이라 나 라를 위함 야 빛 씩을 구함 며 님 군  
의 게 충성함 고 부모의 게 효성함 며 힘을 용정함 고 빛  
의 게 밋부며 호천 판을 밧드러 칠 씩 게 조 회 함 며 호 부  
처 남 게 절 함 고 정은 을 념 함 며 네 가지 은 혜 권 마 스 우  
스름이라를 감 푸 며 님 니 삼 교 유도 불도를 힘 함 며 급  
흔 것 전 지 기 를 학 철 의 고 기 갓 치 함 고 유례 박회 지 나  
노인 말 이 가위 티 함 구 함 을 그 물 의 절 님 시 갓 치 함 며  
외 로 온 서 를 불 상 이 님 이 고 파 부 를 무 효 함 며 늘 근 니

를공경하고가난하니를어엇비녀이며의식을조비  
 하야길에그한하니를구제하며관곽을시주하야죽  
 임을드러나게말며집이부오커든친척을거느리며  
 흉년이어든니웃슬진흫하며말과취을을공평이하  
 야적게주오만히밭지말며노복디점용물너그러이  
 할지니엇지갓초척망하며사달니구하리오정문을  
 박여민들며사원<sup>의절과형현</sup>을짓고증슈하며약지를  
 주어질고물전지며다탕을주어목마르물풀며혹산  
 것슬스쳐놓으며혹지제하야죽이기를징제하며거  
 름아다항상버러지와기아마를보며불을금하야외



와슈풀을살오지말며등불을혀쳐스름단니느티빗  
최며벵를민드러스름을전네며외히올나사를그물  
치지말며물을링흐야고기를히흐지말며빛가든쇼  
를잡지말며글즈쓴조회를바리지말며남의지산을  
도모치말며남의지조를루기치말며남의안히와셀  
을음난치말며남의송스를부츠키지말며남의명리  
를문화치지말며남의훈인을와흐지말며스스원슈  
를인흐야남의형데를불화케말며적은리를인흐야  
남의부즈를불목게말며천세를의지흐야착흐니를  
욕흐지말며부요흐를밋어곤궁흐니를업슈히턱이

지 말며 착호스름 이어든 친근이 호야 덕행을 몸과 마  
음의 돕고 악호스름 이어든 먼니 피호야 저 양을 눈섭  
의 막으며 상호모로미 남의 악호것 술숨기고 착호것  
술나타니며 입으로올라호고 마음의 글니 녀이지 말  
며 길히 걸니는가의 남글버히며 길히것치느 돌을 입  
시호며 슈빅년 험호길을 닷고며 천만인왕리호는다  
리를 민들며 교호을드리워스름의그른것 술바르게  
호며 지를을더러스름의아름다운일을늘우며 일을  
호미런리를 쫓호며 말을니타인심을 순케호며 넷  
명철호는니를국에와담에도보며 늘은남군이물호시거

안지삼년에 잠유시면 유를국에 뵈유고 혼노야는 것  
슬니불과그림자에삼가 나불이붓그림지아니코흐도  
그림지아니란말이라 붓모든악을짓지말고여러가  
지착호일을행하면기리악호별이빗회지아니코상  
히길호신령이호위하며갓가이잡피면죄몸의잇고  
멀니잡피면조손의게잇쳐박가지복이호가지로니  
르고천가지상체구름갓치모되리나엇지음즐가온  
되로족차이더오미아너리오

령형과

이산사소용중의힘배음즐문을행하더니축사히큰

홍년들의 살뵈 밧삼천이 랑을 더러 과민을 구제함이  
슈업논 지라이에 아들쑤을 나하더니 일일은 쑤이 옥  
국판의 가노다가 데군화상을 어더 민양아침의 정성  
으로 바련지스년의 아들식을 나하벼슬이 상셔의 너  
르고 또이년의 아들철을 나하벼슬이 사랑의 너르니  
라

하문진승상의 일흠을 놀이 너 정화초와 과거를 당함  
야 데군사당을 지날시 암축하고 기도함야 더니 이 밤  
꿈에 데군이 날너 온오사 되네가 맛당이던시 창천을  
홀거시오 칙문글 제논도를 무르리라 문잔이 칠하의

니르러맛춤도덕경을이더쥬야강치하야더니과장  
을당하리척목이과인도를뜻고노장원을하니라  
진서산덕쉬급데못하야슬짜장춧하저소행의회시  
를보라갈서길이팔창따흔자나논지라벗정달도와  
언약하야하가지로데군사당의드러가숨을발며그  
북을치고북우희절귀를베올오티크게친족크게응  
하고적게친족적게운다하고내가와흔반치면련디  
가움족여오호스히의그소리가들니라하야더니  
그밤에길몽을어고그히의과연진사를맞치니라  
왕문각공오와신문정공사하이데군보후을정성으

로 밧드러 힘버히흐야 더니 문각은 회시 장원호리 데  
군게 오셔 장옥종의 현령호시고 문정은 장원을 맞치  
리령자 초 볼 노가 칙상우히 낫더니 두공이 문장과 상업  
으로 천고의 탁월호고 조손의 파데 일면호니라

리원짜 제성왕용여등십여인이 문창사를 믿들고 민  
양더군게 기도호고 공명을 비더니 사증에 유린이라  
호는니 호근호므로 일컷고 또 옥종쥬라호는니 호  
글 잘호고 말 잘호므로 사증이 추복호더니 평통신유  
년원조의 왕용여의 게모되기를 쥬호야 초제를 호기도  
이 라 호 배풀이 전기호야 문창궁속단의 가자더니 스

름이셔여 곧오디테 군이 전상의 오르신다 하거늘 용  
에 전말히나아가물셔 맞지 못하야 보니 버린 화불이  
촉턴하고 테 군이 단좌하야 제신디 턴하 성황이 신도디  
향시 방척을 시글셔가거 배보니 거늘 혼신인이 불근  
조복입고 큰척을 안아 테 군게 나아 올시 용예 그신인  
게 무러왈 본고을 방목중에 왕용여의 일홈이 잇는나  
답왈 업노라 또 문왈 유린과 옥종 쥐잇는나 또 답왈 업  
다 하더니 이윽하야 그신인이 척을 밧드러 올닌디 테  
군이 천감하시고 미인명하의 혼슈결을 쓰시다가 쥬  
려하야 붓술나리오 자아나시더니 오리게야 그신인

이 천을 가지고 선 유하야 나르디 각 성 때 이러 성황의 게  
부쳐 속히 음덕한 집의 인 후 흘저 식을 사 실하야 방목  
증의 슈결 못 두 신 저를 밧고 게 하라 흘 연 드르니 전 너  
로 너 왕 용 여를 불너 드러 와 보라 하거 놀 용 여 진 천 혼  
디 데 군이 곧 오사 디 여러 히 너 희 등 표 장을 보고 거 도  
라 네 지 성을 인하야 불너 분석 하노라 네 한 아 비 와 아  
비 다 질 박 하고 삼 가 허 불이 업스므로 너를 임의 향과  
하게 주를 다라 추 후 호 보를 밧쳐 너네 가 평 성의 신  
도와 부쳐를 만나 디 다 만 가 만이 제 몸 공 명과 쳐 양 시  
병 낫기 만 빌고 파 거 혼 어 미 잇스 되 돕 기를 비 늘 말 아



니 흠을 인하여 일노 배죄를 어든지라 두번과 거의 너  
첫는 나라 용예 고두샤 죄호디 테군이 또 곧 오사 디 동  
사의 쥬길 이이 제 과거의 장원호리 라 용예 쥬길의 장  
원호는 연고를 못주온디 테군이 곧 오사 디 쥬길의 조  
부와 아비 다 선비로셔 호글 제 공문의 들미 업스며 호  
번도 간음치아니 코스름의 단척를 드러 너지아니 호  
고 또 그 조뵈뵈인 설 현판이 지참을 치어 배스름을 가  
르쳤더니 상테아름다 이 녀이 스삼디를 창성케 기록  
하시미 나라 용예 또 고두왈 유린과 옥종 쥬는 다 과거  
호리 잇가 테군이 문컨 맛튼 동즈를 도라 보스명호야

티원천비척을스출하야보시고얼끌빗치깃거아니  
하시논듯하야결오사티유린이논번번이흐과거를  
어들너니어버이를섬기미속으로비방하고또각박  
히스름을의론하야불근인정하고로과거의너치고  
도욱종쥬논나미귀이흔죄조를쥬어응당전스하야  
벼슬이소보의니르러치스하고나히류십구체의선  
종홀너니그죄조를밋고거오하며히하하고말이만  
히공표하물인하야명사부의셔그경박호구과채를  
괴록하야음악흔문셔의보고그벼슬홀복을다업시  
하시나만일늘거도오히러회과홀출아지못하면장

찾그슈를앗는나라음살파구패실뺏만흐야도보응  
이잇고공명의터옥대기되느니다만살성과음난흐  
는죄업은적이스스로스랑호출아는지면오히려금  
제흐물아디입으로비소흐고혜방흐메니르러는소  
년습자로배뺏어드물삼으며심흉이경박흐야원기  
를상흐미되니가히두렵지아나흐랴네맛당이체상  
선비를널니권흐야이것슬보와경계를삼아내방의  
슈결흔혀에크게쥬려흐물히비케말지어다용예비  
샤흐고물너나오다가씨나라그히가을과거방에쥬  
질이과연그고을에웃들이되니라

구경산준의조는중심이니어려서부터데훈을피복  
하야날마다문창효정을가져외오더니호로전역은  
문청지<sub>에</sub>잡<sub>아</sub>일<sub>하</sub>의셔고요히월시땀에데군이정제하  
야곧오사디즈네정문을광포하야세상스름을넌나  
권하<sub>면</sub>내맛당이갑테연운하고<sub>데</sub>일고대<sub>하</sub>집이<sub>구</sub>  
위극문신하<sub>므로</sub>갑푸리라정산이인하야벚으로더  
부러효정오천여천을박여광시하야더니그후과거  
날에구두형신<sub>클</sub>맛<sub>은</sub>별<sub>이</sub>라이<sub>부</sub>슬<sub>을</sub>잡고<sub>클</sub>장<sub>을</sub>싸고<sub>압</sub>  
히쳐뒤놀며또클장우히금조문창효정이라쓰엿  
더니슈유의보지아니코상처의빗치장옥의가득하

고귀이호향의원몸의엄습흐를존연이셔라라글성  
각이대철흐야부두루리돛과又더니과연장원의새  
히고벼슬이소보대학사의니르니라

양양민공박이라부상셔되야슬셔의디스를명흐야  
걸디를릭흐시모쥬동문밭게셔흐어드니두언덕이  
원연흐야집모양즈튼지라셔로니르되귀디라흐는  
지라공이글오덕이논원고을문장과태에관계흐곳  
지라네엇지스스로이허리오흐고문창데군사우를  
그다히세우니스름마다공의후덕을관모흐더니후  
의공의장조준민은벼슬이호부상셔의니르고테스

조준청은 벼슬이 금의위의니르고삼조는 다 강신되  
고준경의 아들 원상과 원상의 아들 체방이 다 참한의  
니르니라  
고시어몽리의 호는 우문이니 제상이 되야 슬씨의  
계운을 정성으로 섬기고 부훈을 힘배히고 너니 꿈에  
계운이 곧 오사 되조네 일흥이 일륙에 시제일이야 다  
알어 잇고 글을 논이에 의봉<sub>교을</sub>스름이 보기를 청호리  
라하시거늘 꿈에 여히몽치 못하야 너니 만력 갑술년  
과창의 시관이 손월봉으로더부러 공을 장원의 비겨  
너니 방목을니 일씨의 비로소 차례 여섯지 새히고하

남의 봉헌관이 되어야 천치흥므로 포평의 데일이 되며  
어수에 싸히니라

굉정구의 조노응지나 윈집이 데군을 정성으로 섬기  
더니 강희이븐년의 향천의 거슈흥고 갑인증추일의  
데군이 그 집의 강필흥고 소훈문삼편과 심참일부틀명  
흥소삭여세상을 청제흥라하시니 훈의가 슈순흥고  
간절흥신지라 몽이 즉시 인조흥야 망시흥야 더니 병  
진의니 르러 회시의 낭장장원흥고 손조계풍이 오정  
병오향천의 거슈흥고 텡미 회시의 낭장장원흥나  
라  
가흥고 을향교훈장범광섭이 강희병인년의 문창각

을세을시리를다다가넷도흔낫출어드니면의년기  
문문네글즈가전즈로삭이묘등의필정련등의형상  
을지엇더라녕묘년의문창각을일우묘각상의전즈  
로현잇흐야더니무진년의슈찬비술이라삼정문이드  
디여문장이련하의웃듬이되니년기문운스즈가과  
험흐니라

회계싸전자원의모왕시순치십팔년동의병이위리  
흐니지원이데군계지성으로빌고음즐문만장을인  
조흐야더니슈일이못흐야모병이긋낫묘향년이팔  
십일셰되니라



화정싸송학기취심시상한병을엇고점하야반산하  
고훈미하니모든의원이속슈하느라학기데군게  
정성으로기도하고음즐문삼천장을박아류포하야  
더니병이긋나흐니라

완평싸샤소전이나히소십의즈식이업더니순치기  
히동에음즐문만장박여관하야더니그안히약즐노  
여리번양산하되기르지못하더니이에니르러병이  
낫고첩으로더부러각각하아들을나흐니라

무림싸공장의즈논이뵈니발원하고음즐문이박여  
만장을박여전포하야더니장히원년의그집청사압

정문인출흔든곳의데군이강포옥타로나제비시나  
정성이빠이여하늘의감동하니배단몽미의동정영  
실뿐아니라장의안질치질과제확시의림산혈증  
과질부셔시의히산의신고흡과질부리시의적병과  
종공현의상한병과종화복의담천증이다나흐나공  
장의정문만히인시흥고정영으로기도호호힘으로  
말미아무말너라

안장정의주는성유니평일의일심으로데군을참기  
러니강희정소년취의몸에데군이글흔친을주시니  
제목의골오뒤단계적이라하야거늘여러보나이에

음즐문이라 써 여심히 이상이 알고 인함야 그 룯 뒤 조  
정표공과가 부운로공의 모돈바문창데군음즐문주  
히호척을차즈보고참증함야 인릭함고즈함터니지  
력이부족함야 및 처결을치못함야 더니계히년가을  
의니르러또쑹의테군이그집의강림함시거논장경  
이복디고두함온터테군이무리곧오사더음즐문주  
를완필함야 논나장정이황공함야 년화음고려박함  
야바야호로호공공코즈함니나다함고써여즉디변리  
함서녕문츄의장정의집상히리질노심히위터함지  
라장경이테군계단계적을속히박여광모함기를정

성과도 후야 더니 괴도를 맞치면 가인의 리질이 점점  
나하원집이 무병하니라

김이상이 우연이 혈증을 어더복약 무효 후 더니 맛창  
힘척진병의 손이 되야다가 예군의 음졸문을 어더보  
고드 더 여간시 후야 배성호문을 광전 후기를 정성으로  
발원 후야 더니 이상의 병이 즉시 나으니라

이것이 상의 병이 즉시 나으니라



凡人在世忠孝為本

泰平修文

夫士修身識時為原

治先用武

行之又行如高登山進而又達如散

遠道登高自卑行遠自逋自

卑而高九層之樓臺基本於塵

土自逋而遠千里之道始如源一

步道在逋而求法在病也心宜子

之意自高害也本之惡純是政

